

러시아정교회의 한국선교

강 영 광*

모스크바 교종청 산하 해외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부** 주관사제

1. 그리스도 정교¹

그리스도 정교(正敎, Православие, Orthodox Christianity)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운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이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에서 시작된다[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2]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사도들의 선교여행에 관한 내용은 사도행전과 교회의 성전(聖傳)²에 잘 보전되고 있다[3-4].

* 필자약력: 1999년 독서직, 2006년 차보제와 보제, 2009년 사제 서품(힐라리온 카프랄 수좌대주교안수). 한국과학기술원(물리학사), 고려대학교대학원(물리석사),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오사카대학, 국내 대기업 연구원 역임. 현재 한국선교부 주관사제로 활동 중.

**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부는 1897년 러시아정교회 주교회의에서 의결되어 결성되었고 1900년 3월 한국 땅에서 첫 예배를 올렸다. 그 후,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과 세계대전으로 한국선교부는 러시아의 재정지원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1949년 6월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부 책임자 뽀리까르뽀 신부는 어머니와 함께 38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되었다. 1994년故 강태용신부는 뉴욕에 본부를 둔 해외러시아정교회의 수장 비탈리 수좌대주교의 축복으로 1949년 이래 단절된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부의 맥을 45년만에 다시 이었다. 해외러시아정교회는 2007년 푸틴대통령의 중재로 본토의 모스크바 교종청과 1917년 혁명 이래 단절된 일치를 90년 만에 회복하여 현재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부는 다시금 모스크바 교종청 산하에 소속되었다.

¹ 그리스도교는 로마가톨릭(천주교), 개신교, 정교회를 아우르는 용어로 쓰인다. 그리스도의 한문 번역이 기독교(基督)이므로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부의 한글 공식 명칭은 대한기독교교회(大韓基督敎教會)였다. 일본정교회의 공식명칭은 일본 하리스도스(그리스도의 러시아식 발음) 정교회(日本ハリスドス正敎會)이다. 정교회의 가르침인 “정교(正敎) 기반의 그리스도교”의 한글 표현으로 “그리스도 정교”로 표현한다.

² 성전, 聖傳, Holy Tradition은 성경 외 교회의 주요한 교의, 공의회 문헌 등 전승(傳承)을 말한다.

그 후 그리스도교는 300여 년간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어오다가 마침내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5대 지역교회(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가 확립되었다. 정교회는 AD 325년부터 681년 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세계 공의회(Ecumenical Council)의 가르침과 결정사항을 믿고 준수한다. 정교회 교리는 제1차(AD 325), 제2차 세계 공의회(AD 381)에서 제정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그 내용이 잘 집약되어 있다³.

세계 공의회는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하였다; 첫째, 교회의 가시적 조직을 선언하고 다섯 개의 교종좌(敎宗座, Patriarchate)⁴를 확립하였다. 둘째, 성 삼위일체(聖三位一體), 한 분이신 하느님과 육화(肉化, Incarnation)⁵라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결정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의(敎義, δόγμα, догма)를 인간의 언어와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神秘, μυστήριον, таинство)로 받아들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 후 박해가 멈추고 그리스도교가 성장하던 바로 그 때 수도원 제도가 생겼다[5]. 수도생활은 4세기 초에 이집트에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처음 나타났고 그곳에서 급속히 퍼져 나갔다. 수도자들은 피의 순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나타난 청빈의 순교자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잔틴제국이 하나의 성화상이며 상징인 것을 잊고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비잔틴제국으로서 완전

3 “나는 믿습니다. 한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 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으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은 성부께서 쫓아 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인,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인 세례를 일고 믿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4 동방정교회 최고위 성직자를 국내에서는 흔히 총대주교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교종(敎宗), Patriarch으로 한다. ‘Patriarch’라는 호칭은 ‘Pope’과 같은 의미이다. ‘Pope’은 아버지란 뜻이다. 아브라함도 ‘Patriarch’로 호칭된다. 한국어로 ‘총대주교’는 독립교회의 수장(首長)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5 육화(肉化, Incarnation)은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 라는 뜻인데 이를 “임마누엘”이라 한다.

히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였다. 이 때 수도자들은 사막과 광야에서 은둔하면서 교회생활에서 예언자적이며 종말론적인 성직의 의무를 다하였다[6]. 수도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는 이기적이고 속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성시켰다. 수도생활은 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은수자, 둘째는 공동 수도생활, 셋째는 반은수 공동 수도생활이다. 정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와 같은 수도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7-9].

1054년 정치, 문화, 종교적 이유로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리되면서 교회 또한 이탈리아 중심의 서유럽과 그리스 중심의 동유럽으로 나뉘어 현재까지 ‘로마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양분류(兩分流)로 흐르고 있다. 9세기에 시작된 러시아정교회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후 소위 ‘제3의 로마’로 불리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비잔틴 정교(正敎)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오며 동방정교회의 실체적인 대표 격이 되었다[10].

서유럽은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오늘날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동유럽은 다양한 지역과 국가기반의 정교회를 이루고 있다. 현재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의 4개 고대 교종청과 모스크바 교종청 이외, 그루지야,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와 슬로바키아, 미국, 이렇게 10개의 독립적 지역교회가 있다. 즉, 현재 서방교회는 1명의 교황과 수많은 개신교파로 구성되어 있다면 동방정교회는 15개의 지역 정교회⁶가 있다. 동방정교회 전체 신도수는 약 2억2천7백만명이다. 대다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 키프로스, 마케도니아, 그루지야에 분포되어 있다. 각 지역 정교회는 사도 전통의 교회법(Apostolic Canon)에 의거한 고유한 선교 영역(Canonical Territory)이 있다. 지역 정교회들은 상호 간 서로의 교회법적 선교 영역을 침범할 권리가 없다(표 1 참조)[11].

15세기 비잔틴 제국의 멸망 후에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콘스탄티노플의 교종을 임명하였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독립은 상실되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신생 민족국가의 형성과 함께 지역 독립 정교회가 다시 생겨나면서 선교 영역에 대한 지역 정교회 간 마찰이 있었다. 20세기 초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수많은 정교회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자국을 떠나야만 했다. 1920년대에 콘스탄티노플 교종청이 유럽과 미국에 새로운 교구를 설립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르비아, 루마니

⁶ 15개의 지역 정교회를 독립 정교회(Autocephalous Orthodox Church)라고 부른다. 이와 별도로 각 독립교회에 소속된 자치 정교회(Autonomous Orthodox Church)가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교종청, 시나이 정교회는 예루살렘 교종청, 일본정교회는 모스크바 교종청 소속이다.

아, 불가리아 교종청이 서유럽과 미국에 디아스포라 교구를 설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회구조가 나타났다⁷.

혹자는 동방정교회가 로마가톨릭처럼 콘스탄티노플의 교종을 “동방의 교황”으로 하는 수직 계열화된 구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정교회는 전체 정교회의 대표 수장(首長)을 가진 적이 결코 없다. 지역 정교회는 서로 화합하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비잔틴 제국 시대부터 콘스탄티노플 교종은 “세계의(ecumenical)”라는 호칭을 지니고 있는 데, 이는 각 지역 정교회의 수장들과 “동등하지만 첫째(first among equals)”라는 명예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과 명예적 수위권이 콘스탄티노플 교종청이 교회법적 선교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12].

정교회는 15개의 지역 교회가 때로는 선교 영역을 두고 마찰이 있기도 하지만 첫째 공동으로 성찬예배를 집전하는 것, 둘째 교리상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 셋째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 자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단일성, 공동체성, 보편성을 유지하고 있다.

7 북미대륙의 정교회는 1794년 러시아정교회의 알래스카 선교[13]에서 시작되었고 성 헤르만, 성 이노켄티, 성 티혼(러시아혁명 당시 공산당을 파문하고 순교한 교종), 알류트인 성 베드로, 성 유브날, 상하이와 샌프란시스코의 성 요한 등 6명의 대표적 러시아정교회 성인을 배출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7백만명의 정교회 신도가 있고 8개의 지역 정교회와 그 산하에 총 14개의 교구가 존재한다; (1) 콘스탄티노플 교종청 산하 6개(그리스정교회 미국 대교구, 그리스정교회 토론토 관구, 미국-우크라이나 정교회, 캐나다-우크라이나 정교회, 미국-알바니아 정교회, 미국-카르파토 러시아정교회 교구). (2) 안티오키아 교종청 북미 대교구. (3) 모스크바 교종청 2개(미국 교구, 해외러시아정교회). [4] 세르비아 정교회 미국 및 캐나다 교구. (5) 루마니아 정교회 미국 관구. (6) 불가리아 정교회 미국, 캐나다, 호주 교구. (7) 미국정교회. (8) 안티오키아 정교회 교구.

표 1. 15개의 지역 정교회의 신도수와 선교 영역

	교회	공식 신도수	교회법적 선교 영역
1	콘스탄티노플 교종청	7,000,000	터키, 크레테, 도데카니사 제도 디아스포라
2	알렉산드리아 교종청	1,000,000	이집트와 전 아프리카
3	안티오키아 교종청	1,500,000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디아스포라
4	예루살렘 교종청	156,000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5	모스크바 교종청	160,000,000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발칸반도 및 중앙아시아 제국가, 디아스포라
6	그루지야 정교회	3,000,000	그루지야
7	세르비아 정교회	8,000,000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8	루마니아 정교회	20,000,000	루마니아, 디아스포라
9	불가리아 정교회	8,000,000	불가리아, 디아스포라
10	키프러스 정교회	500,000	키프러스
11	그리스 정교회	10,000,000	그리스
12	폴란드 정교회	1,000,000	폴란드
13	알바니아 정교회	700,000	알바니아
14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교회	74,000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15	미국 정교회	1,000,000	미국, 캐나다, 멕시코

1000년의 역사를 가지며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래 고대 교종청들이 이슬람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전체 동방정교회는 15세기부터 터키·이슬람 치하에서 400여 년 간이나 초대교회가 로마제국 치하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왔다. 러시아정교회 또한 13세기에 몽골의 압제 하에서 250년 간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 정교(正敎) 신앙을 지켜왔다.

불과 100년 전인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또 다시 대부분의 동방정교회들과 러시아 정교회는 무신론자들의 학정 하에서 10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14]. 20세기에 흘린 순교자의 피가 초대교회 300년 보다 더 많았다[15, 16]. 이러한 고난의 세월을 견디어 오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온 동방정교회는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받은 풍부한 영성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무신론 치하에 있던 동유럽과 러시아가 1990년 초부터 개방되면서 동방정교회는 자유를 맞이하게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17].

2. 러시아정교회

성전(聖傳)에 의하면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성 사도 안드레아가 나중에 러시아 땅이 된 스키타이 지역에서 복음을 설교하였다. 성 안드레아는 키예프 산 위에 올라 가서 나무 십자가를 세운 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이 빛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스키타이인과 슬라브인의 스승인 성 안드레아는 키예프에서 출발하여 노브고로드, 볼가강, 라도가호수까지 선교했고 발람에 가서는 그곳에 돌십자가를 세우고 모든 곳을 십자가 표시로 축복했다. 성 안드레아의 제자들은 슬로벤스크에서 스몰렌스크까지 모든 곳을 다니며 선교했다. 많은 이교도들이 세례를 받고 페룬과 벨레스 신전들이 파괴되었다[18].

성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70인 사도 중 한 명인 성 클레멘트도 케르손에 3년 간 머무르며 성 안드레아의 영적 전통을 이었다. 니케아에서 열린 제 1차 세계공의회에 스키타이의 수좌주교가 보스포러스의 카듬 주교, 케르손의 필립 주교, 고트의 데오필로스 주교와 함께 참석했다고 기록되어있다. 4세기 말 성 요한 금구(金口)는 고트⁸ 교구의 주교로 우닐을 축성한다[19].

AD 867년에 키예프 왕자 아스콜드와 디르가 가장 먼저 세례를 받았다. 그 후 100여년이 지난 957년에 키예프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한 삶에 감동받은 올가 공주는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해서 교종에게서 직접 세례를 받았다. 그 후 올가의 손자 블라디미르 대공은 자신이 세례를 받은 후 전 민족이 드네프르강에서 세례를 받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세례 후 경건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은 그를 “아름다운 태양”으로 부르며 그와 함께 하느님께 다가갔다. 러시아정교회는 올가 공주와 블라디미르 대공을 그들의 선교적 열정을 존경하며 “사도들과 동등한(Equal-to-the-Apostles, Равноапостольным)” 성인으로 간주한다[18].

슈메만은 “정교회의 역사에 러시아가 등장한 것은 불가피하게 전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하며, 정교회의 역사 발전 가운데 러시아의 중요성은 그 어떠한 것에도 비교 불가능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하였다[20]. 러시아정교회의 역사는 (1)루스 시기: 키예프 루스(10세기 중반~14세기 초반), 모스크바 루스(14세기 후반~17세기)⁹; (2)시노드 시기(18~19세기); (3)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혼돈과 부활의

⁸ 역사학자 클루체프스키(V. O. Klyuchevsky)에 의하면 고트족도 러시아인에 포함된다.

⁹ 키예프 루스에서 모스크바 루스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서구 루스(Western Rus) 시기(15세기 중반~17세기 후반)가 있다. 이 시기는 폴란드령 우크라이나 지역인 후기 키예프 관구에서 동방전례를 따르면서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우니아트 교회(Uniate Church)를 확산시키려는 로마가톨릭과 러시아정교회 간의 갈등으로 많은 희생을 가져왔고 마침내 1654년

20세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21].

일천 년의 장구한 러시아정교회의 역사를 총 18장에 걸쳐 일목요연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해석¹⁰을 담아 되돌아보고 러시아혁명을 종교혁명으로 규정하며 1945년 저술 당시 공산주의 치하의 러시아정교회의 미래를 조망한 제르노프의 저서는 러시아정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길잡이 중 하나이다[22]. 이외 국내에 러시아정교회의 개요[23, 24]와 신학[25-30], 영성[31-36], 예배[37-39], 이콘[40-44], 음악[45] 등이 소개되었다.

제르노프가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의 장(제 5장)을 할애하면서까지 기술한 라도네쯔의 성 세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러시아정교회의 정수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46]. 제르노프는 다음 세 가지 의미에서 라도네쯔의 세르기를 ‘러시아의 창설자’[47]로 부른다. 첫째, 몽고 타타르 압제에 대항하여 모스크바의 정치적 독립을 고취한 것이다. 모스크바의 대공 드미트리 돈스코이가 그의 축복을 받고 콜리코보 전투에서 타타르를 물리치게 된 것은 러시아 독립의 초석을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둘째, 제자들의 수도원 설립을 통해서 밀림을 개척한 것이다. 그는 당시 문명 세계와 동떨어진 밀림의 개척자이자 탐험가, 선교사로서 문명의 한계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밀림을 경작지로 바꾸었다. 성 세르기 생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50개의 수도공동체가 설립되었고 사후에는 40개 이상이 설립되었다. 셋째, 깊은 영성체험과 신비로운 기적을 통하여 러시아정교회의 신앙을 고취한 것이다. 성 세르기는 수도생활과 사회적 생활의 양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다른 성인들보다 더 성공했다. 그와 그의 후계자들의 영향 아래 1350년에서 1550년까지의 두 세기는 러시아영성의 황금기를 형성한다. 바로 이 시기에 모든 정교회 이콘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성 안드레이 류블레프의 성삼위 이콘이 그려졌는데 이는 성 안드레이가 자신의 스승 성 세르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 속의 성 세르기, 그리고 성인으로서, 러시아의 아이콘으로서의 성 세르기와 그가 세운 성 삼위일체 수도원의 역사와 의미를 러시아민족의 정체성과 연관 지은 연구[48]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비교연구하며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를 조망해 보는 척도를 제공한다. 성 세르기의 영성은 그의 제자들과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합병되고 1685년 키예프 관구가 모스크바 교종청 산하로 편입되면서 마무리 되었다.

¹⁰ 예를 들면, 그는 무신론 러시아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한다, “러시아정교회는 유행불로 정화되었으며 그 구성원들의 고통은 매우 컸다. 그들 가운데 다수가 희생당했지만 그리스도교 계시의 진리는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스도교를 공격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과 아름다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22]의 제17장 그리스도인과 무신론자, 마지막 문장(한글판 p.213).

가 세운 성 삼위일체 수도원을 통해서 러시아 역사 가운데 종교적, 민족적, 신학적 중심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첫째, 성 삼위일체 수도원은 요셉이 이끄는 소유파와 니이 이끄는 비소유파 간에 있었던 두 세기 반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에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 쪽을 화해시키는 균형적 입장을 고수했다. 마침내 요셉의 제자들이 승리를 거두자 성 삼위일체 수도원은 패배하여 박해받는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했다. 둘째, 성 삼위일체 수도원은 가장 힘들었던 두 시기, 즉 몽고의 침공(1238-40)과 폴란드 및 스웨덴의 침공(1605-13) 시 민족과 국가를 지키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중심이 되었다(17~18세기)[49].

3. 러시아정교회의 한국선교

우리나라는 100 여년 전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일제 치하의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당시 조선왕조의 사실상 마지막 황제인 고종과 공산혁명으로 무너진 로마노프왕조의 니콜라이 2세는 서울에 러시아정교회 성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외교적 협력을 해 온 사실들이 러시아의 국립문서보관소에 남아있다. 당시 고종은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울에 성당 건축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우정’을 보였다. 그러나, 이 ‘우정’이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실행이 지연되어 니콜라이 2세 황제는 스스로 부지를 매입하고[50, 51] 마침내 서울에 ‘성 니콜라스 성당’을 건축했다[52].

한국에서의 러시아정교회 선교를 기록한 사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00년부터 1925년까지 선교활동 현황과 성과를 상세히 기록한 일명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 25년사’이다[53]. 수사대사제¹¹ 암브로시가 이끌었던 1차 선교단은 1898년부터 활동했으나 니콜라이 보제가 한국 땅에 성찬예배를 위한 성물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대사제 흐리산프가 이끄는 2차 선교단이 1900년 2월 러시아공사관에서 최초의 성찬예배를 드리고 기본적 기도서 번역과 학교를 여는 등 적극적 활동을 했다. 2차 선교단은 중국 북경의 러시아정교회 선교단과 중국어 기도서와 교리서 번역을 위해서 협력했다. 당시 북경선교단은 한국선교단에 중국어로 번역된 모든 책들을 한 권씩 빌려주었는데, 북경선교단이 1900년 6월 의화단 사건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도서관이 소실되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어 시급히 북경으로 다시 보내야만 했다¹².

¹¹ 러시아정교회 성직 위계는 다음과 같다; 교종(敎宗, Патриарх), 수좌대주교(首座大主教, Митрополит), 대주교(Архиепископ), 주교(Епископ), 수사대사제(修士大司祭, Архимандрит), 대사제(Протоиерей), 수사사제(修士司祭, Иеромонах), 사제(Иерей), 대보제(大補祭, Протодиако́н), 보제(Диако́н).

1902년 니콜라이 2세 황제가 매입한 대지에 학교, 사택으로 구성된 선교단 건물이 완공되고 1903년에 학교 건물에 임시 성당이 축성되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으로 2차 선교단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수사대사제 파벨이 이끈 3차 선교단은 1906년에 활동을 재개했다. 주일, 축일, 토요일에는 교회 전통에 따른 규칙적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졌고 기도서, 예식서, 교리서 등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54] 성가대가 창설되고 성가들이 편곡되었다. 3차 선교단장 수사대사제 파벨은 1912년 블라디보스톡의 주교로 승품되었다. 그 후 혼돈 속에서 선교단장이 변경되다가 수사대사제 페오도시가 1917년 선교단장으로 부임했으나 러시아혁명의 여파로 위기를 겪다가 1923년 일본정교회 관할로 옮겨진다.

1936년 일본 동경의 세르기이 수좌대주교가 뿔리카르쁘 수사대사제를 한국 선교단장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일본정교회는 1940년 정치적 이유로 모스크바와 단절한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1945년 12월 한국선교부는 다시금 모스크바 교종청 소속이 되었다. 패전 후 일본을 통치하던 미군정은 일본정교회의 책임자로 미국정교회의 베냐민 대주교를 임명하도록 한다. 베냐민 대주교는 한국인 김의한보제를 사제로 서품한 후 그를 한국선교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뿔리카르쁘 수사대사제는 1948년 12월 성찬예배 후 성당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한 후 1949년 6월, 38선을 넘어 홀어머니와 함께 북한으로 추방되어 한국 땅에서 러시아정교회 선교는 막을 내렸다¹³.

러시아정교회의 한반도 선교의 주된 동기가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56, 57]. 그러나 키리첸코는 이러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반박한다[58]. 순교자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근대 러시아정교회 성인 중 가장 사랑받는 사로프의 성 세라핌[59-61]의 시성식(1903년)에 참가한 직후 극동지역에 황제의 대리권

¹² 한국선교부는 한국어 번역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중국선교부에서 번역한 중국어 선교 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했다. 당시 중국어로 번역된 기도서 및 교리서가 한국어 번역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¹³ 이 사건을 뿔리카르쁘 수사대사제가 소련의 간첩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추방된 것으로 단 순화하면서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그가 진정 소련의 간첩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즉각 체포했어야 했다. 그러나 1948년 12월 12일, 성찬예배 후 김의한사제를 따르는 한국인 신도들이 뿔리카르쁘 수사대사제를 강제로 성당에서 쫓아내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당일 경찰은 뿔리카르쁘 수사대사제를 체포하였다. 1948년 12월 18일, 경찰은 김의한사제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 그리고 뿔리카르쁘 수사대사제 앞에서 김의한 사제를 한국선교부 대 표로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뿔리카르쁘 수사대사제는 1948년 12월 29일 감옥에서 풀려 난 후 성당에 나가지 못한 채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1949년 6월 18일 다시 체포된 후 1949년 6월 21일에는 고문까지 받고 모든 소유물을 몰수당한 채 1949년 6월 29일 38선에서 북한 경찰에게 넘겨졌다[55].

(代理權, Наместничество, Vicegerency)을 창설한다. 키리첸코는 이 결정이 정치나 상업보다는 선교를 우선 시 한 것으로 해석한다. 순교자 황제 니콜라이 2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교회의 결정 이전에 한반도 정교 선교단을 결성한 것 그리고 현 국제연합(UN)과 20세기 초 국제연맹의 전신이 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1899년 5월 18일)를 제안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한 그의 공로¹⁴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볼 가치가 있다.

1994년 봄, 부활절에 해외러시아정교회[63] 주교회의는 칙령¹⁵을 발표하여 한국에 러시아정교회를 45년만에 재개하였다¹⁶. 해외러시아정교회는 러시아혁명 후 티혼 교종의 칙령 362호(1920년 11월 20일)[65]에 의거하여 성립되었다. 상트 뻤레르부르크 신학원과 모스크바 신학원 총장을 지냈고 티혼 교종과 함께 가장 존경받던 안토니 흐라포비츠키 수좌대주교[66]의 영적 지도력으로 해외러시아정교회는 1921년 유고슬라비아의 카를로프치에 본부를 설립한 후 1950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른다. 해외러시아정교회는 순교자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 공산혁명으로 순교한 수많은 새 순교자들, 러시아혁명을 예언한 크론슈타트의 성 요한[67], 상트 뻤레르부르크의 성 크세니아 등을 공산 치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모스크바 교종청보다 앞서 시정하고¹⁷ 상하이와 샌프란시스코의 성 요한[68]과 같은 현대 성인을 배출하며 러시아 본토는 물론 유럽, 북남미, 아시아 등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해외러시아정교회와 모스크바 교종청은 2007년에 재일치하였다[69].

2006년 8월 북한 평양에 러시아정교회 성당이 축성되었다¹⁸. 킬릴 수좌대주교(당시 러시아정교회 외교부 의장, 현 교종)는 축성식에서 100여년 전 한반도 선교의 시

14 미국의 하딩 대통령은 1921년 워싱턴 회의 기조연설에서 니콜라스 2세가 제안한 원문 전체를 인용하며 그의 공로를 인정하였다[62].

15 勅令(УКАЗЪ), 해외러시아정교회 주교회의(1994.3.23~1994.4.5) 공문번호 2-61-75: 의결 사항; ①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부 창설을 축복함. ② 강태웅(유스틴) 신부를 한국선교부 주관사제 및 성 요한 성당의 주임사제로 임명함. ③ 한국에서 미래 성직자, 교사, 사목 봉사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과정의 설립을 축복함.

16 강태웅(유스틴) 신부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 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신학자 성 요한 성당과 신학과정을 운영하다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쇄함. 2000년도에 강원도 삼척에 성 안나 성당을 건립하고 각 지방에 소공동체들을 만들어 선교 활동함. 강 신부는 2009년 6월 새로운 이름 요한(크론슈타트의 성 요한)으로 삭발례(힐라리온 카프탈 수좌대주교 집전)를 하고 수도생활을 하다가 2014년 4월 안식함. 모스크바 교종청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고려인 페오판 김(Феофан Ким) 수사사제(현 키질 및 투바의 주교)를 서울에 파견하여 슬라브계 신도를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함[64].

17 모스크바 교종청은 러시아정교회 1천년을 기념하는 1988년부터 성인의 시성을 본격 재개한다.

18 모스크바에서 신학과정을 마친 요한 라관철 신부, 표도르 김희일 신부가 봉직하고 있다.

작과 혁명과 전쟁의 피로 얼룩진 고통의 20세기를 회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였다[70]. 지난 2008년 9월 故 알렉세이 2세 러시아정교회 교종은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서울에 러시아정교회 성당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 ‘복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것은 러시아정교회의 재산권¹⁹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부 간 100년 전의 성당부지에 대한 기록물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했었던 듯하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의 헌법 상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니 한국정부가 러시아정교회의 서울성당 건립을 위해서 해 줄 것이라고는 행정절차 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러시아정교회는 1990년부터 지난 27년 간 1917년 혁명 이후 몰수된 교회재산을 점차적으로 반환받고 있고 파괴된 성당들을 재건해 오고 있다. 그들의 바람은 러일전쟁과 러시아혁명으로 상실된 자신들의 서울성당 재산을 반환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복원’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근처에 러시아정교회 성당이 2016년에 완성되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특히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수탈해온 역사를 포함해서 서로 과거의 아픔이 많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안목으로 서로의 종교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가수반 차원에서 무역확대 등의 빅딜을 포함해서 성당을 짓게 된 것이다. 우리 서울에도 하루속히 100여년 전의 러시아정교회 성당이 복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일환으로 최근 키릴 교종의 저서, <<자유와 책임>>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하여 키릴 교종의 비서실장인 세르기 대주교가 방한했다[71].

한국은 다종교사회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부터 불교가 뿌리깊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조선시대의 유교 또한 우리의 내면에 큰 자리를 차지한다. 반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지는 그리스도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서방교회의 전통만이 200여 년 전부터 전달되었다. 동방정교회 그 중 러시아정교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2월 “1000년 만의 만남”으로 전 세계 언론은 물론 국내에도 보도되었듯이 프란시스코 교황과 키릴 교종이 쿠바에서 만났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자 가톨릭교회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키릴 교종은 모스크바와 전(全) 러시아정교회의 교종으로서 서로 만나서 30개 항목에 대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21세기 현재 고통받은 모든 하느님 백성의 구원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가톨릭교회

¹⁹ 노무현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규명’의 일환으로 1차 조사된 바 있으나 8.15 광복, 6.25 전쟁 이후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단의 재산권 변경 경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러시아정교회 성당이 있었던 서울 중구 정동 22번지(현 경향일보 사옥 위치)는 현재 (재)정수장학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와 러시아정교회가 하나의 신앙으로 협력하자는 것이다. 본 공동선언문 11항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것과 평화구축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72].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성 세라핌이 수도생활을 했던 사로프 지역에 수소폭탄 실험 시설이 들어섰다. 이곳에서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가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그는 “과학은 인류의 삶이 진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핵무기는 이에 반하는 것이기에 나는 핵무기 연구를 포기한다”라고 선언했다. 사하로프 박사의 조부가 러시아정교회 사제였다는 사실은 사하로프 박사의 위대한 결단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0세기 무신론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족상잔을 경험한 러시아는 정교(正敎)정신으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마치 120여 년 전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한국, 미국, 일본의 해양세력이 대치하는 위기 상황이다. 먼저 주변 4대 강국의 합의와 협력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²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국이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뚝 설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형제 북한과 하나가 될 것으로 믿는다.

라도네쯔의 성 세르기가 러시아민족에게 받는 존경심과 사랑은 우리 한민족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가지는 마음과 비슷하다. 즉,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민족과 백성을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와 세속, 수도영성과 현실정치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주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의 진리, 정의,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의 ‘땅’은 한반도이다. 성 사도 토마스가 인도를 거쳐 한반도 가야 땅에 와서 선교활동을 했다는 전설[73]과 또한 실직국(태백, 동해, 삼척, 울진)까지 선교했다는 연구[74]는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희망과 자부심을 준다. 살렘의 왕이자 하느님의 제사장인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며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다[75]. 살렘은 ‘평화의 땅’이란 뜻이다. 한반도가 평화의 땅 살렘이 되어 한반도에서 온 세계로 평화가 퍼져나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²⁰ 현재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과 북핵과 경제협력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견과 방법론마저 각각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과 방법론을 달리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차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일부 정치인, 외교관, 정치 및 외교 부문 전문가와 학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종교인, 교육인, 언론인, 과학자, 문학가, 예술가, 기업가, 공무원, 노동자, 학생을 포함한 온 국민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공동번역성서, 사도행전 2: 2-4, 대한성서공회.
- [2] 공동번역성서, 마태오 복음 28: 19-20, 대한성서공회.
- [3] 신치구. “성서와 전설에서 본 열두 사도의 생애”, 가톨릭출판사(1992).
- [4] From the Menology of St. Dimitri of Rostov in Russian and The Great Synaxaristes of the Orthodox Church in Greek, <<The Lives of The Holy Apostles>>, Holy Apostles Convent(1988).
- [5] 허성석. <<수도 영성의 기원>>, 분도출판사(2015).
- [6] 뵈라지오와 요한 엮음, 요한 실비아 역. <<사막교부들의 금언집>>, 분도출판사 (1988, 2012).
- [7] 팔라디우스 저, 엄성옥 역. <<팔라디우스의 초대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 은성 (2009).
- [8] 엄성옥 역. <<공주수도원의 창시자 파코미우스의 생애>>, 은성(2010).
- [9] 파이시오스 저, 앙겔리키 박 역. <<아토스 성산의 수도사들: 성모님의 정원>>, 정 교회출판사(2011).
- [10] 강태용. <<동방정교회>>, 홍익재(2010).
- [11] Metropolitan Hilarion Alfeyev. <<Orthodox Christianity>>, Vol.1, St. Vladimir’s Seminary Press, p.334.
- [12] Ibid., p.336.
- [13] Ed. Michael J. Oleksa, <<Alaskan Missionary Spirituality>>, Paulist Press(1987) / 누가 알렉산더 베로니스 저, 남정우 편역. “아메리카의 사도, 이노센트 베니아 미노프(1797~1878)”, 제 7장, <<동방정교회 선교사들>>, 한국학술정보(2007).
- [14] 황영삼. <공산정권 치하의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임영상·황영삼 공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p.253-282.
- [15] Michael Polsky. <<The New Martyrs of Russia>>, Brotherhood of St. Job of Pochaev, 1972.
- [16] Ivan Andreyev, <<Russia’s Catacomb Saints: Lives of the New Martyrs>>, St. Herman of Alaska Press, 1982.
- [17] 신동혁, “현대 러시아에서 정교회의 사회적 역할: 정교회 주도 메가 포럼과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7권 3호, pp. 99-130(2012).

- [18] Seraphim Solobodskoy. <<The Law of God>>, “The Fall of the Roman Church. The Enlightenment of the Slavs”, Part III, Chap.65, Printshop of St. Job of Pochaev, Holy Trinity Monastery, Jordanville, N.Y.(1994). / Серафим Слободской. <<Закон Божий>>(1966).
- [19] A. Nikitin, “Russian Orthodox Church: Yesterday, Today, Tomorrow”,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3집, pp.9-33(2003).
- [20] Alexander Schmemmann. <<The Historical Road of Eastern Orthodoxy>>. St. Vladimir’s Seminary Press(1997).
- [21] Alexander Preobrazhensky. The Russian Orthodox Church: 10th to 20th Centuries Progress Publishers(1988).
- [22] 니콜라스 켄르노프 저, 위거찬 역. <<러시아 정교회사>>, 기독교문서선교회(1991), 한글판 2부에서는 Francis House의 Millenium of Faith를 발췌 번역한 러시아혁명 이후의 러시아정교회 역사를 실었다. 이 책의 요약이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다(<http://www.korthodox.org/russian.html>). 원저: Nicholas Zernov, <<The Russians and Their Church>> (1945).
- [23] 강태용. “러시아정교회”, 『기독교사상』 43권 4월 통권 484호 pp. 220-228(1999).
- [24] 석영중. <<러시아정교: 역사·신학·예술>>, 고려대학교 출판부(2005), 석영중·신동혁. 키워드로 만나는 러시아정교, 한려대화 문화예술총서 4, 한려대화사업단(2012).
- [25] 존 메이엔도르프 저, 박노영 역. <<비잔틴 신학: 역사적 변천과 주요 교리>>, 정교회출판사(2010).
- [26] 게오르기 플로롭스키 저, 허선화 역. <<러시아신학의 여정 I, II>>, 지식을 만드는 지식(2016).
- [27] 블라디미르 로스키 저, 박노양 역. <<동방정교회 신비신학에 대하여>>, 한국장로교출판사(2003).
- [28] 블라디미르 로스키 저, 김영숙, 이용권, 최동규, 최윤희, 허선화, 홍대화 공역, <<정교신학 개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2017).
- [29] 알렉세이 호마코프 저. 허선화 역. <<교회는 하나다 / 서구 신앙 고백에 대한 정교 그리스도인의 몇 마디>>, 지식을 만드는 지식(2010).
- [30] 채수일. “개혁교회가 정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것”, 『기독교사상』 2017년 3월호 통권 제 699호 pp. 199-203.
- [31] 안토니 블룸 저, 김경기 역. <<살아있는 기도>>, 가톨릭출판사(1975).
- [32] 안토니 블룸 저, 김승혜 역. <<기도의 체험>>, 가톨릭출판사(1974).

- [33] 저자 미상, 최익철·강태용 역. <<이름없는 순례자>>, 가톨릭출판사(2015).
- [34] 광승룡. <<도스토예프스키의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 가톨릭출판사(1998).
- [35] 카리톤 저, 엄성옥 역. <<기도의 기술>>, 은성(2000, 2012)
- [36] 토마스 슈피들릭 저, 광승룡 역. <<그리스도교 동방 영성>>, 가톨릭 출판사 (2014).
- [37] 알렉산더 슈메만 저, 이종태 역.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복있는 사람 (2008).
- [38] 알렉산더 슈메만 저, 박노양 역. <<대사순절: 부활절을 향한 여행>>, 정교회출판사(2013).
- [39] 백알랴나. “러시아정교회 예배해석에 대한 신학적 고찰”,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 [40] 이덕형 저. <<러시아 문화예술의 천년>>, 생각의 나무(2009).
- [41] 장궁선 편저. <<이콘·신비의 미>>, 기쁜소식(1993, 2009).
- [42] 황규완·장궁선 (공)편저, <<영감의 예술: 러시아 성화>>, 석경미술(2003).
- [43] 우스펜스키 저, 박노양 역. <<정교회의 이콘신학>>, 정교회출판사(2012), 이 역서는 노어판 Л. Успенский. Богословие иконы в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Париж(1989), 영어판 L. Ouspensky의 <<Theology of the Icon Vol. 1, Vol. 2, St. Vladimir's Seminary Press(1992)>>의 발췌 번역이다. 원저의 1장 및 13~18장은 번역되지 않았다(1장. 교회의 상징주의, 13장. 헤시카즘과 러시아 예술의 발흥, 14장. 16세기 모스크바 공의회와 성(聖) 예술, 15장. 17세기의 예술(분리된 예술, 단절된 성전), 16장. 모스크바의 대공의회와 성부 하느님의 형상, 17장. 시노드 시기의 러시아정교 예술, 18장. 현대 세계의 이콘). 향후 완역본 출간을 기대한다.
- [44] 장실 저. <<이콘과 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2010).
- [45] 김건정 저. “동방교회 음악순례기 1~6” 월간 콰이어 & 오르간, 2016년 1월호 (pp.68-72), 2월호(pp.58-62), 3월호(pp.88-84), 4월호(pp.76-81), 5월호 (pp.104-108), 6월호(pp.88-95).
- [46] 니콜라스 켄트노프 저, 위거찬 역. <<러시아 정교회사>>, pp.57-64, 기독교문서선교회(1991).
- [47] Nicholas Zernov. <<St. Sergius-BUILDER of Russia>>, Based on the Ph.D. Dissertation, Oxford University,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1938).
- [48] David Miller. <<Saint Sergius of Radonezh, His Trinity Monastery and the

- Formation of the Russian Identity>>,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2010).
- [49] Pierre Kovalevsky, <<Saint Sergius and Russian Spirituality>>, St. Vladimir's Seminary Press(1976).
- [50] 박종효.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 보관집」, 한국국제교류재단(2002).
- [51] 최지윤. “러시아정교회의 초기 한국선교”,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2013).
- [52] 임영상. “러시아정교회와 한국: 서울선교부의 설립 과정과 초기활동”, 「슬라브 연구」 12, 1996, 125-157.
- [53] 페오도시 빠레발롭. “한국에서의 러시아정교회 선교회(1900-1925)”, 하얼빈 (1926), 빠즈드냐예프 엮음. 이요한, 이정권 옮김.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 이야기」, pp. 207-348, 홍성사(2010).
- [54] 김동연, 러스 킹. “러시아정교회 한글자료의 국어학적 특징”, “자암진명”, “간략 혼시험”, “한인의게 고하는 말이라”, 「러시아정교회 관련 한글 자료집」,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05).
- [55] 디오니시 빠즈드냐예프. “한국에서의 러시아정교회 선교 역사(1917-1949)” (1997), 본 논문의 참고문헌에서는 모스크바 교종청 산하 외교부의 공식문서들과 빨리까르뵈 수사대사제의 자서전을 인용한다, 빠즈드냐예프 엮음. 이요한, 이정권 옮김.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 이야기」, pp. 384-397, 홍성사(2010).
- [56] I. K. 스몰리츠. “러시아 교회사”, p.281(1997).
- [57] 남정우 저. <<동방정교회 선교역사 연구: 러시아정교회의 한인선교 사례(1860~1925)를 중심으로>>, p.349(2007).
- [58] O. V. 키리첸코. “공의회 시기(18~20세기 초)의 러시아 교회와 국가적 과제 측면에서 본 한국 선교 문제”, 러시아의 대한(對韓) 정책과 한·러 관계의 역사적 성격, 2007 한·러 공동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사)한·러협력연구소, pp.157-183(2007).
- [59] 발렌틴 젠더 저, 박노양 역. <<세라핌 성인: 사로브의 천사>>, 정교회출판사(2009).
- [60] Lazarus Moore, <<St. Seraphim of Sarov: A Spiritual Biography>>, New Sarov Press(1994).
- [61] 강태용 역. 1부: “수도자와 평신도에게 주는 영적 교훈”, 2부: “성령 받음에 대하여(모토필로프 저)”, 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부 출판사(2009), 원서: <<Little Russian Philokalia, Vol. 1: St. Seraphim of Sarov>>, St. Herman of Alaska

- Brotherhood(1978).
- [62] Michael Polsky. <<The New Martyrs of Russia>>, p.109, Brotherhood of St. Job of Pochaev, 1972.
- [63] Alexey Young. <<The Russian Orthodox Church Outside of Russia: A History and Chronology>>, St. Willibrord's Press(1993).
- [64] 최지윤, 드미트리 페트로프스키 저. “한국정교회 역사”, e-book, China Orthodox Press Publishing Company(2015), http://www.orthodoxbookshop.asia/catalogue/a-short-history-of-orthodox-christianity-in-korea_191/
- [65] Alexey Young. <<The Russian Orthodox Church Outside of Russia: A History and Chronology>>, pp.21-26, pp.113-116, St. Willibrord's Press(1993).
- [66] [https://orthodoxwiki.org/Anthony_\(Khrapovitsky\)_of_Kiev](https://orthodoxwiki.org/Anthony_(Khrapovitsky)_of_Kiev)
- [67] 크론스타트의 성 요한 저, 박노양 역.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 정교회출판사(2014). 이 역서는 발췌번역으로 원저의 약 15%에 해당한다, 원저: Иоанн Кронштадтский, <<Моя жизнь во Христе>>, Издательство Срепенского монастыря(2016), 영어판: St. John of Kronstadt, Trans. by, E. E. Goulaeff, <<My Life in Christ>>, Cassel and Company(1897), Holy Trinity Monastery(1984), 영적 보물이 가득한 이 책의 완역본 출간을 기대한다.
- [68] <http://www.korthodox.org/john.html>
- [69] 황영삼. “러시아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구와 해외러시아정교회의 교회통합에 관한 연구”, 슬라브학보 제25권 3호, pp.193-219.
- [7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5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244>
- [7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0058.html
<http://www.patriarchia.ru/db/text/4936138.html>
<http://www.patriarchia.ru/db/text/4936027.html>
- [72] 키릴 교종 저, 강영광 역. <<러시아정교회 키릴 교종의 자유와 책임: 인권과 인간 존엄성>>, 부록 2, p. 260, 대한기독교서회(2016).
- [73] David H. Chung, <<A Saga of Apostle Thomas: A Summary>>, Dongsuh Nambuk Press(2007).
- [74] 강태용 저. <<‘한’ 사상과 그리스도 정교영성>>, 세순출판사(2012).
- [75] 공동번역성서, 창세기 14: 18-20, 대한성서공회.

Astract

We introduce the history of Orthodox Christianity (Eastern Orthodox Church) and current status of Autocephalous and Autonomous Orthodox Churches in the world. We briefly review the history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and Her Mission in Korean peninsula. And we remind readers of the restoration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n Seoul, which the late Patriarch Alexei II suggested officially to Korean Government in 2008. Finally, we show our expectation of the Korean Orthodox Mission of Russian Tradition.

주제어 : 그리스도 정교(正敎), 동방정교회, 러시아정교회, 해외러시아정교회,
모스크바 교종청

Key Words : Orthodox Christianity, Eastern Orthodox Church, Russian Orthodox Church,
Russian Orthodox Church Outside of Russia, Moscow Patriarchate

본 논문은 2017년 4월 30일에 접수되어 2017년 5월 15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5월 16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강영광 바오로 (Kang, Paul Young-Gwang / Republic of Korea)

모스크바 교종청 산하 해외러시아정교회 한국선교부 주관대사제

(Archpriest, Administrator, Korean Orthodox Mission, Russian Orthodox Church Outside of Russia, Moscow Patriarchate)

E-mail: paulkang7@gmail.com